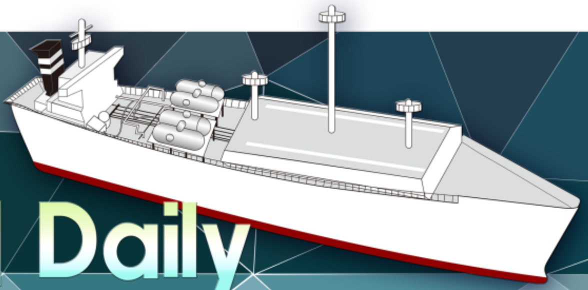
meritz
조선/기계 Daily
2021. 9.29(수)



meritz 메리츠증권
조선/기계
Analyst 김현
02. 6454-4861
hyun.kim@meritz.co.kr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中, 엔진 공급 달려 고심

중국 조선업체들이 주엔진과 크랭크샤프트 등 조선기자재 공급 부족으로 수주기회를 놓치고 있음. 이에 조기 인도 프리미엄까지 포기하며 신조선 수주활동이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Sinogas, 세계 최대 VLGC 발주

싱가포르 소재 중국 선사 Sinogas Management가 93,000CBM급 df VLGC 2+3척을 CSSC 산하 Jiangnan Shipyard에 발주함. 계약규모는 총 3.8억달러로 2023년 8월 인도될 것으로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미포조선, 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2021년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함. 기본급 4만원 정액 인상(정기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만원, 경영위기 극복 격려금 100만원 지급 등이 내용으로 보도됨. 오는 30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함. (파이낸셜뉴스)

중국 코로나 재확산에 물류망 혼란 가중

중국이 닝보, 샤먼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물류 혼란을 겪고 있음. 상하이, 닝보항 대기 컨테이너선이 전세계 선단의 3%에 달하는 등 물류적체가 심화됨. 닝보항은 8월 25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지만 혼란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상하이는 태풍 찬투의 영향을 받음. 9월 13일 샤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이 봉쇄됨. (코리아쉬핑가제트)

엎친 데 덮쳤다…韓기업, 중국 전력난에 '초긴장'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전력난으로 제조시설 가동이 중단됨. 포스코는 장쑤성에서 운영 중인 일관제철소 장가항포항불수강의 가동을 일부 중단함. 시진핑이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화석연료 줄이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한국 기업들은 전력난 장기화에 대비해 대책 마련 중. (이데일리)

현대엘리베이터 설치도급비 갈등 '일단락' 되나

'집단설치중단' 사태까지 벌어진 현대엘리베이터와 협력업체 간 갈등이 봉합되는 중. 24일 1차 협상에서 각각 +8%, +15% 인상을 제시, 업계에서는 추가 협상을 통해 +10% 내외 인상으로 합의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보도됨. +10% 인상 합의 시 2022년부터 도급비는 인당 평균 18.7만원으로 상승함. (e대한경제)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www.imeritz.com